산업통상자원부	보도참고자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12. 1.(목) 14:30	배포 일시	2022. 12. 1.(목)
담당 부서	중견기업정책관 유통물류과	책임자	과 장 정상용 (044-203-4380)
		담당자	사무관 김애경 (044-203-4384)
			사무관 황인택 (044-203-4389)

화물연대 운송거부 장기화에 따른 시멘트 등 주요업종 긴급 수급 점검

- 운송거부 7일간 주요 업종에서 1.6조원(잠정) 규모의 심각한 출하차질 -

- 무역협회 및 주요 협단체, 중소 화주 손해배상소송 대행 검토-

- 정유 분야, 업무개시명령 선제적으로 검토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**은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8일 차에 접어들면서 산업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본격 확대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 **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 대한 긴급 수급 점검회의를 개최**하여 **업종별 피해현황 및 전망, 대응방안**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.

【 긴급수급 점검회의 개요 】

◇ (일시·장소) 12.1(목) 14:30 / 서울 정부청사 (세종 영상연결)
◇ (목적) 시멘트, 정유, 철강 등 주요 업종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 점검
◇ (참석자) 장영진 1차관(주재), 산업혁신성장실장, 중견기업정책관, 철강, 시멘트, 자동차, 정유, 무역 등 주요 업종 담당 과장

○ 업계에 따르면, 화물연대 운송거부 7일간('22.11.24~11.30) **시멘트, 철강, 자동차, 정유 등** 분야에서의 **출하 차질 규모는 총 1.6조원(잠정)**으로 파악되었으며,

- 운송거부가 보다 장기화 될 경우 출하차질이 생산차질로 연결되어 피해 규모는 막대한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.

구분		11.27일 (~4일차)	11.28일 (5일차)	11.29일 (6일차)	11.30일 (7일차)	누계
시멘트 (10만원/톤)	규모	46만톤	17.8만톤	17.9만톤	15.5만톤	**97.6만톤**
	금액환산	464억원	178억원	179억원	155억원	**976억원**
철강 (130만원/톤)	규모	25.24만톤	10.65만톤	10.62만톤	9.74만톤	**56.26만톤**
	금액환산	3,282억원	1,384억원	1,381억원	1,267억원	**7,313억원**
자동차 (4,759만원/대)	규모	3,264대	1,516대	797대	1,130대	**6,707대**
	금액환산	1,554억원	721억원	379억원	538억원	**3,192억원**
정유 (약1,600원/ℓ)	규모	206,324kl	37,022kl	15,892kl	20,114kl	**259,238kl**
	금액환산	3,249억원	594억원	258억원	325.4억원	**4,426억원**
합계		8,549억원	2,877억원	2,196억원	2,285억원	**1조 5908억원**

* 업종별 출하차질 규모를 평균가격 등에 의거 금액으로 환산한 수치이며, 실제 기업에 직접적으로 전가되는 피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

○ 아울러, 시멘트 등 업종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아래와 같이 파악되었다.

① **시멘트**: 업무개시명령 이후, 운송 복귀 차주가 늘어나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어 당초 우려되었던 생산중단 가능성은 축소

② **정유**: 대체 탱크로리 확보 등 출하량 확대를 적극 추진중에 있으나, 품절 주유소가 수도권에서 충청, 강원 등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국민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모든 수단 검토

③ **석유화학**: 업체별로 최소규모 출하(평시 대비 10~30% 수준)가 지속되고 있으며 출하가 전면 중단된 대산,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일부업체의 경우 이번주부터 생산량 감산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

④ **철강**: 운송거부 이전 대규모 선출하 등으로 선제적인 대비를 적극 시행하였으나, 현재와 같은 평시 50% 수준의 출하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량 조절 필요성도 조만간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

□ 한편, 산업부는 한국무역협회, 한국석유화학협회, 한국철강협회, 한국자동차산업협회·자동차공업협동조합 등 주요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단체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피해를 입은 중소 화주의 손해배상소송을 대행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.

□ 장영진 1차관은 “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산업 전반과 더불어 국민생활로 본격 확산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임”을 강조하면서, “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”고 당부하였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